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제대로 된 첫 단추      성경: 마태복음 4장 12-17절

Tag: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4:12-17)

영적 바톤, 구약의 바톤을 세례요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영적 바톤을 물려주고 난 다음 세례요한은 더욱 담대하게 헤롯왕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례요한은 이제 확신에 차서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까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였으니 제대로 된 개혁에 앞장 서야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세례요한은 이제 헤롯왕이 자신의 왕권을 내어 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담대하게 헤롯왕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헤로디아는 세 번째 결혼하였다.(남편이 모두 삼촌뻘 왕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결혼이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반대여론을 불러 일으켰고, 세례요한은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약간은 자신의 명성도 이용한 면이 있음) 왕권에 도전함. (개인적인 의도에서는 다분히 그 왕위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이 의도적 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힘을 실어주지 않으셨다.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을까? 정치적인 의도가 달라서였을 것이다.)

요한은 곧 바로 붙들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사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그러나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 된 셈.-복음전과의 본거지.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동쪽 위에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 지중해쪽 두로와 시돈, 갈릴리바다 요단 건너 동쪽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활동을 시작하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랍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요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9:1-2)

그리고 예수님의 슬로건은 17절의 말씀이다.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는 촉구였다.

누구든, 어느 시대든 그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회개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대로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다.

회개는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회개란 형벌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가장

근본적으로 회개란 용서가 전제되어 있고(용서 뒤에는 사랑이 있다), 형법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구형과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심판 뒤에는 정의가 있다.)

물론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때에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도 통하지 않고, 특히 회개도 통하지 않는다. 냉철한 절대적 심판만 존재한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다.

기독교에서 용서가 전제된 회개라는 점은 그 구심점이 결국 최후의 심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최후의 심판이 모든 죄와 벌에 대한 최종적 결론인 셈이다.

최후의 심판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

1. 자기변명, 핏수
2. 자기 판단, 자기 의
3. 용서청탁

최후의 심판은 왜 이토록 몰인정하고, 잔인한가? 그것은 너무 오래도록 마땅한 심판을 뒤로 미루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의 용서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의와 공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첫 단추는 회개이다.

회개(자백)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더욱 힘겹다.)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과도 같다. 즉 회개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데는 건강한 용기가 필요하지 만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용기가 있어야 부끄러움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다.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이 발각 되었을 때가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다.

그래서 자기의 거짓 지식을 옹호하기까지 하고, 그 거짓이 진리인양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상을 전향하기는 무척 힘들다. 사상이란 신념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 신념들이 어느 부분이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밝히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의 성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나 이슬람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역사에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는 자신의 지식 앞에 솔직하고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무식의 절친)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된다.

용기가 없으면 거짓 뒤에 숨어버리거나 군중 속에 숨어 버리려고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숨는 것)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수치감을 느낄 줄 아는 것.

부끄러움을 없애고, 수치감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용기,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단하는 용기, 부끄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용기가 필요함.

1.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2.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무지하며,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배워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3. 고통, 실패, 문제, 환난, 위기 등에는 어쩔수 없이 자신의 또는 가족의 또는 민족의 또는 인류의 최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4. 그러므로 우리의 자백은 개인적, 가족적, 민족적 자백이 되어야 한다.

5. 민족이 회개할 때 성령운동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

6. 자백은 부끄러움을 확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해소하고 벗어나려려는 몸부림이다.

7. 자백이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부끄러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이다.

8. 어떤 연예인은 커밍아웃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은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 자백효과를 노린 철가면일 뿐이다. 그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가 어떻게 다시금 진리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왜 자백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자율적이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자백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있는 존재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란 한 사람 개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

-2018년에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2017년을 진실되게 정리하자.

아멘.

-모든 인생은 서로간의 죄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백을 통해서 청산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청산 절차도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족과 교회, 더 크게는 민족 단위로 죄를 몰아내는 방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양예배>

제목 : 생각의 근력      성경: 로마서 12장 1-3절

Tag: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12:1-3)

1절은 몸을 위한 명령

2절은 마음을 위한 명령 (마음이란 지정의의 복합체. 마음이 곧 인격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심. 의지의 핵심.

3절은 생각을 위한 명령

생각은 지식과 직결됨.

지식이란 명제들의 집합체.

뇌란 지식으로 명제를 만들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말로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판단에 활용한다.

생각의 근력이란 이런 뇌의 작용을 잘 하도록 훈련하는 것.

생각을 잘 하면 잘 할수록 뇌는 잘 작동한다. 이게 병들면 치매.

한편으로는 뇌세포의 근력을 키우는 것.

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과 생각들로 하나의 역사와 사상과 체제와 가치관을 자존심이라는 띠로 묶어놓고 끊임없이 컴퓨팅하면서 살아간다.

근력이 잘못 발달할 경우도 있다.

그 근력을 픽스하는 곳이 학교, 정부, 병원, 교회, 회사 등.  
물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거짓을 활용함.

성경 읽기

성경을 암송하기

성경을 해석하기 (쓰기) 특히 내 말로 쓰기

이 이상 더 좋은 생각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없다.